

<학습개요>

특수교육의 역사에서 통합교육에 대한 논의는 1960년대 메인스트림(mainstream)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1980년대 일반교육 주도의 특수교육(REI: Regular Education Initiative), 그리고 1990년대 완전통합교육(Inclusion)으로 발전해 왔다(교사 탐, 참조). 메인스트림은 능력별편성제도에 의해 일반학급에서 비합리적으로 쫓겨나 특수학급에 배치되었던 장애인과 다문화 민족 부모들의 절규이고, REI는 메인스트림 교육의 실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기비판에서 제안된 것이다. 그러나 완전통합교육(inclusion)은 이전의 통합교육 운동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개된 것으로, 장애의 유무와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교육받아야 한다는 철학에서 비롯되었으며, 이것은 패러다임 이동과 관계있다.

최근 특수교육계에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 배치를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이미 1980년대 REI 논쟁에서 제안된 것이다. 이제의 Inclusion, 즉, 완전통합교육 시대이며, 우리는 이미 완전통합교육(Inclusion)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다. 이것은 패러다임 이동의 문제이며, 오늘날 통합교육의 당위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이동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패러다임 이해는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하는 준거이기 때문이다.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이동이라고 하는 용어는 1960년대 물리학자인 토마스 쿤(Thomas Kuhn, 1962, 1970)에 의해 자연과학에서 제안된 것으로, 1980년대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재해석됨으로써, 교육의 변화를 요구받아 왔다. 따라서 오늘날 완전통합교육은 패러다임 이동과 교육의 변화 요구에 대한 이해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학습개요>

1.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이동의 개념
2. 사회과학에서의 패러다임 이동
3. 기능주의 교육과 인간주의 교육
4. 완전통합교육의 당위성

<학습목표>

1.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이동의 개념을 이해한다.
2. 사회과학에서의 패러다임 이동을 이해한다.
3. 기능주의 교육의 문제점과 인간주의 교육을 이해한다.
4. 완전통합교육의 당위성을 이해한다.

I. 왜 통합교육인가?

1.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이동의 개념

오늘날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로 변화에 대한 적응을 말하고 있다. 새로운 세상이 되었으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봐야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더욱더 확장하는데 급급할 뿐이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와 교육의 변화 요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이동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패러다임의 개념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는 토마스 쿤(Thomas Kuhn, 1962, 1970)이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라는 책을 통하여 처음 소개하고 있는데,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특수한스'이며, '이 렌즈는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명확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반면, 다른 것은 볼 수 없도록 하는 독특한 속성을 갖는다.'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 사람이 하나의 사물을 보면서 색깔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 사물의 색깔을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으로 각각 다르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각기 다른 색을 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각자 다른 색의 렌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인은 누구나 자기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는 렌즈를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식의 해석을 하고 있다. 물론 비슷한 색깔의 렌즈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기준으로 집단을 형성하고, 세계와 사회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설명한다. 다른 색깔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된 개인이나 집단이라고 단정 짓는다. 이것이 패러다임이다.

그 시대에 가장 우세한 패러다임은 그 사회에서 정상과학(normal science)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진보라고 하는 것은 우세한 패러다임을 개량하고 확장해서 표현하는 고도의 누적적 활동이며, 하나의 채택된 패러다임은 과학적 작업에서 필수적인데, 이유는 그 패러다임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과학적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방법과 도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개념과 이론이 그들 해석에 적절한지를 알도록 특정 지우기 때문이다(Kuhn, 1970).

2) 패러다임 이동의 개념

패러다임 이동은 우리가 하나의 렌즈를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일어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렌즈를 갈고 닦을수록 자기만의 색깔이 더욱 선명하게 투사될 뿐이다.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이동을 말하면서, 16세기 뉴턴의 절대성 물리학에서 20세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물리학으로 이동했으며, 뉴턴의 물리학은 정상과학의 위치를 상실했고,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이 정상과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금도 정상과학은 어디론가 위치를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물리학은 뉴턴의 절대성 패러다임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패러다임으로 이동했으며, 패러다임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은 정상과학에 대한 변칙(abnormal)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때로는 밤사이엔, 사람의 정신이 위기에 깊이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다."(Kuhn, 1970, p.90)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은 혁명과학이 된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은 정상과학 내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으며, 아무리 엉터리 같을지라도, 정상과학을 벗어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그 자체가 혁명과학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저서를 통해 쿤이 말하려는 핵심이다. 정상과학이 과학자 집단을 사이에서 기존 패러다임의 상호간의 인정을 요구하는 반면에, 혁명적 과학은 패러다임 이동을 요구한다.

2. 사회과학적 사고의 네 가지 패러다임

토마스 쿤의 업적은 자연과학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과학의 객관주의적 관점(Barnes, 1985)에 대한 비판이며, 그것은 사회과학을 위한 심오한 해석을 한다는데 중요성이 있다. 위기와 혁명이 그것을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대체할 때까지는 한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자연과학과는 달리 사회과학에서는 여러 개의 패러다임들이 공존한다. Burrell과 Morgan(1979: Ritzer, 1980 참고)은 사회과학의 다수의 패러다임을 두 차원의 초이론적 가정들 간의 관계에 의해 개념화하였다. 하나는 객관성-주관성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질서-갈등 차원이다.

1) 객관성-주관성 차원

Burrell과 Morgan은 과학의 본질 또는 그들의 분석에 대한 주관론적-객관론적(subjective-objective) 차원을 형성하기 위하여 철학 내 논쟁의 네 가지 전통적인 요소, 즉, 존재론(ontology: 실체의 본질), 인식론(epistemology: 지식의 본질), 인간 본성(human nature: 인간행동의 본질), 방법론(methodology: 조사연구의 본질)을 사용하였다. <표 1>은 네 가지 요소 각각의 극단의 입장들을 나타낸다.

<표 1> 사회과학적 사고의 주관성-객관성 차원

객관적 사회과학	철학적 요소	주관적 사회과학
실재론	존재론	명목론
실증주의	인식론	반실증주의
결정론	인간성	주의론
법칙적립적	방법론	개체기술적

자료: G. Burrell & G. Morgan(1979), *Sociological Paradigms and Organizational Analysis*, p.3,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s에서 인용.

(1) 존재론(Ontology: 실체의 본질)

실재론(Realism):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사회 실체는 개인의 인식과는 독립적으로 '개인 외부에' 존재하며, 그것은 사실상 자연과학만큼이나 견고하고 확실한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보름달은 개인이 그 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해 있다는 것이다.

명목론자(Nominalism): 사회 실체는 사회를 묘사하고, 이해하고, 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제공되는 이름, 개념, 호칭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즉, 개인이 의미를 가지고 보름달을 보았을 때, 이미 어제의 그 달이 아닌, 전혀 새로운 달로서 개인에게 존재해 있다는 것이다.

(2) 인식론(Epistemology: 지식의 본질)

실증론자(Positivism): 규칙적 결정적인 인과관계를 찾는 것에 의해서 사회적 사건들을 예견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지식의 성장은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지식 기반 위에 덧붙여지고, 그릇된 가설은 제거되는 하나의 누적적 과정으로 생각한다.

반실증론자(Antipositivism): 사회란 반드시 상대적임을 가정한다. 관찰자들은 그들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거부한다.

(3) 인간 본성(Human nature: 인간행동의 본질)

결정론(Determinism): 인간은 그들이 외부세계와 부딪히는 상황에 대해 기계적으로 또는 심지어 결정론적으로 반응한다고 가정한다.

주의론(Voluntarism): 의지가 정신작용의 근거 또는 세계의 근거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훨씬 더 창조적인 인간의 역할에 기원을 돌린다. 인간은 자유의지와 자발성을 가지며, 그래서 인간은 그들의 환경에 의해 통제되기 보다는 그들의 환경을 창조해 나가는데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가정한다.

(4) 방법론(Methodology: 조사연구의 본질)

법칙적립적 방법론(Nomothetic methodologies): 체계적인 조사, 표준화된 도구, 양적 분석; 실재론, 실증론, 결정론을 받아들이는 사회과학자들로 특징지어진다. 그들은 사회를 마치 하나의 구체적, 객관적 실체인 것처럼 다루기 때문에, 그들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객관적인 사회적 실체를 예견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 법칙을 찾으려고, 표준화된 법칙적립적 방법론을 사용한다.

개체기술적인 방법론(Idiographic methodologies): 수시로 수행하는 조사, 비표준화된 도구, 질적 분석으로 대표된다. 명목론자, 반실증론자, 주의론자들과 같은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채택된다. 그들은 인간이 그들의 사회적 실체를 창조하거나 구성하기 때문에, 실제 구성의 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 사회과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들은 개인이 사회를 만들어 내고 해석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비표준화된 개체기술적인 방법론을 사용한다.

2) 질서-갈등 차원

사회차원의 본질은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될 수 있다. 사회학적으로 또는 해석학적으로 Burrell과 Morgan은 사회 본질에 있어서의 극단의 입장, 또는 그들 도식의 질서-갈등(order-conflict)차원을 묘사하기 위해 '규범적 사회학'과 '급진적인 변화의 사회학'을 사용함으로써, 그 문제에 사회학적으로 접근하였다.

규범적 사회학은 현대사회를 정돈되고 통합된 것으로 보고, 그것의 기반을 이루는 질서, 통일과 결합력을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것은 서구에서 우세하다.

급진적 변화의 사회학은 갈등, 지배양식, 그리고 모순에서 사회를 특징화 한다. 그것은 기존의 사회구조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아래 <표 2>는 각각이 관련되는 논쟁점에 대해 두 입장으로 구별한다.

<표 2> 사회과학적 사고의 질서-갈등 차원

규범적사회학(질서)의 관심사	급변(갈등)사회학의 관심사
현상 유지	급진적 변화
사회 질서	구조적 갈등
합의	지배
사회적 통합	부정
결속	자유 이탈
욕구 만족	극박탈
현실성	가상성

자료: G. Burrell & G. Morgan, 1979, *Sociological Paradigms and Organizational Analysis*, p.18, London:Heinemann Educational Books에서 인용.

3) 현대 사회과학적 사고의 네 가지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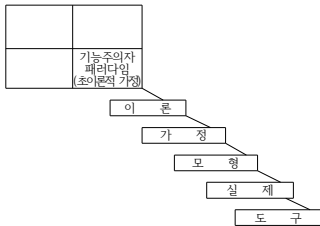
각각의 경우에 과학과 사회 차원들이 균형을 이룰 때 그것들은 [그림 1]에 그려진 것처럼, 현대 사회과학적 사고의 네 가지 패러다임을 만들어 낸다.



[그림 1] 사회과학적 사고의 네 가지 패러다임

자료: G. Burrell & G. Morgan, 1979, *Sociological Paradigms and Organizational Analysis*, p.29, London:Heinemann Educational Books; G. Ritzer, 1980, *Sociology: A Multiple Paradigm Science*(rev.ed.), p.239, Boston: Allyn & Bacn, 에서 인용.

네 가지 패러다임, 즉, 기능주의(미시-객관), 해석주의(미시-주관), 급진적 인간주의(거시-주관), 급진적 구조주의(거시-객관)는 사회와 과학의 본질에 관한 초이론적 가정들이 상호배타적이고 기본적으로 다르며, 그래서 사회과학 그 자체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화를 전제한다. 각각의 초이론적 패러다임은 앞에서 기술해온 것처럼, 그에 상응하는 이론, 가정, 모델, 실제, 그리고 도구를 나름대로 규정하고 포함한다. 기능주의자 패러다임의 예를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그림 2] 전제조건의 분류체계

각 패러다임은 사회에 대한 상호배타적인 관점을 가지며, 사회를 연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각이 사회과학 자체의 본질에 대한 비교할 수 없는 형태의 초이론적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패러다임은 지식의 독특한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진 하나의 탐구방식이다.

사회과학적 사고의 네 가지 패러다임은 계속 존재한다. 각 패러다임은 그것에 동의하는 사회과학계 일부의 지도적인 틀로서 사용되어진다(Burrell & Morgan, 1979; Ritzer, 1980; Bernstein, 1976).

사회과학에서 다종의 패러다임 상태는 사회과학에서의 쿤(Kuhn)식 의미의 혁명적 과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정상과학을 더욱 어렵게 해왔는데, 그 이유는 Ritzer(1980)가 지적하듯이, 다수의 패러다임 상태는 사회과학자들로 하여금 경쟁자로부터의 공격에 대항하여 자기 패러다임을 방어하고, 논쟁에서 이기려는 역학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1) 기능주의자 패러다임

기능주의자 패러다임은 서구세계에서 사회과학의 지배적인 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를 하는 사회과학자들은 사회적 삶을 통제하고 예측하기 위한 시도로서 행위의 유형, 활동, 상호작용과 같은 미시적 사회현상에 실증적인 방법론을 이용한다. 극단적으로 기능주의자들은 사회의 모든 사건과 구조들은 기능적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그것들이 기능적이지 않다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사회에서의 현재의 모든 측면은 사회 체계에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따라서 "기존의 모든 구조는 계속 존재할 것이고, 한 사회 체계 내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보수적인 편견에 이르게 된다.

(2) 급진적 구조주의자 패러다임

급진적 구조주의자 패러다임은 근대주의의 상태에 대해 비판을 하고 변화를 옹호한다. 그러나 이들은 객관주의자적 입장에서 이러한 관점을 취함으로써 기능주의자 패러다임과 같은 과학에 대한 개념을 공유한다. 현 사회를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통해서 변화를 야기시키는 근본적인 갈등의 상황이라 보고, 거시 객관적 준거의 틀을 이용하여 법률, 관료제도, 기술, 경제와 같은 실질적 구조에 집중함으로써 사회과학에 접근한다. 급진적 인간주의자들이 이념적 구조와 개인의 의식에 관심을 가진 반면에 급진적 구조주의자들은 실질적 구조(material structures)에 대해 비판을 집중하고, 민족, 성, 사회경제적 계급과 같은 전체 범주로서의 개인의 의식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3) 해석주의자 패러다임

해석주의 사회과학자들은 단지 목적으로서 규범과 질서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비록 그들은 사회는 질서정연하고, 통합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기능주의자들과는 달리, 사람들의 주관적 요소에 의해 그들의 사회를 구성해 가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실제의 사회적 구성(사람들이 의미를 창조하고 공유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에 많은 관심을 가진다.

(4) 급진적 인간주의자 패러다임

급진적 인간주의자들은 비록 사회과학의 관점에 있어서는 해석주의자 패러다임에 동의하지만, 그들의 준거의 틀은 급진적 변화의 사회학이다. 이들의 사회에 대한 관점은 진정한 인간의식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존 사회적 구조의 한계들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는 반인간적이고 인간의 발전과 완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기고, 문화, 규준, 가치와 같은 이념적 구조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며, 이러한 구조가 인간의 사고와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4) 패러다임 이동과 사회과학의 초도약

사회학 분야에서의 패러다임 이동과 관련된 발전은 훨씬 더 혁명적인 것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으로의 도약을 가져 왔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 사회과학 지식의 네 가지

지 패러다임의 영역밖에 있는 사회적 분석을 위한 준거의 틀이다(Bernstein, 1983; Lyotard, 1979/1984; Rorty, 1979 참조).

포스트모더니즘의 더욱 큰 중요성은 이것이 지식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한 재개념화이다. 현대에 지식의 일반적인 개념화는 기초적(foundational)이다. 즉, 모든 지식 주장은 판단되어 질 수 있는 고정적 기본 기준이 있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현대적 관점은 독백적(monological)이다. 그것은 지식 또는 진실을 단일한 패러다임 또는 단일한 준거 틀의 목소리로 말하는 독백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지식에 대한 재개념화는 반기초적(antifoundational)이며, 대화적(dialogical)이다. 지식 주장을 판단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본 근거는 없다는 관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에 대한 "진실"은 많은 목소리 또는 관점들 사이의 대화 또는 토론으로 더욱 잘 이해되어진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Bernstein, 1983).

포스트모더니즘의 두 번째 형태는 진보주의적인 자유주의(progressive liberal) 또는 미국적 입장에서는 미국 실용주의의 재활용이 된다(Bernstein, 1983; Rorty, 1979). 원칙적으로 John Dewey의 실용주의 사상에 뿌리를 둔 미국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사회분석의 중요하고도 해방적인 형태의 시발점으로서의 현대의 사회 지식의 네 가지 패러다임을 조건부로 수용하고 있다(Antonio, 1989; Kloppenberg, 1986). 본래의 실용주의 철학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사회생활의 급진적 개방과 참여의 관점에서, 즉, 급진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질서-갈등, 그리고 주관주의-객관주의 간의 미디어를 통해서 현대 지식을 실용적으로 이용할 것을 주장한다(Rorty, 1979; Kloppenberg, 1986).

3. 기능주의 교육과 인간주의 교육

1) 기능주의자 패러다임 교육의 문제

교수와 교육과정의 과학적 기초가 발달하게 된 동기는 동시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에는 서로 미묘한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즉, 심리학적 측면에서 볼 때, 학습자의 지식의 정도는 신체성장의 결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김정권, 1974). 때문에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자들의 책임이고, 교육적으로 일탈된 학생을 위한 적절한 교수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의 역할이라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작동조건화 원리가 교육 전체에 파생되어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특수교육이 행동주의 심리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주의 교육심리학의 실증주의적 지향은 심리측정의 형태에서 평가에 대한 양적 접근을 산출하고 있다. 평가에서의 이러한 양적 접근은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첫째는 효과적인 교수진달을 위해서, 표준화된 능력검사를 사용해서 학생들을 능력별로 학급을 편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합리화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에 담겨있는 지식과 기능에 대한 학생들의 습득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된 성취도검사가 이용된다는 점이다.

능력검사는 능력별로 편성된 학급 내에서 학생들의 능력의 다양성을 통제함으로써, 학교조직의 효율성에 이바지하며(Oakes, 1985), 성취도검사는 졸업생들을 산업과 사무현장에서 여러 직무 투입에 대한 효율적 배치(직제적소의 배치)를 위해 신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점에서 경제적 효율성의 중요성에 이바지하고 있다(Meyer & Rowan, 1977). 그러므로 기능주의자 견해에 의한 학교교육의 기능은 산업심리학 중의 하나, 즉, 정성, 경제면에서 여러 직종에 근무자들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Sping, 1980).

이와 같은 조직(학교교육)의 형성은 대량생산 공장에 일반화 되어 있는 피라미트 모양의 상하할 방식의 통제관계, 즉, 기계적 관료주의의 배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써, 그 조직은 합리적, 기술적 방식 내에서 한층 더한 역할 분담, 작업 과정과 성과의 표준화, 현존하는 규칙들의 정교화, 그리고 한층 더한 감독을 통해 잘 조절 될 수 있는 하나의 기계라는 점이다(House, 1979). 이러한 관점에서의 변화는 더욱 심한 기계적 관료주의의 형태로 나타난다(Cuban, 1989; Skrtic, 1988).

이와 같이 분리교육은 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 제기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특수교육은 치료적 교육으로써, 적절한 치료는 정확한 진단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진단된 아동들은 능력별로 분류하여 교육받는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주의 패러다임을 수용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장애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사회적으로 편견을 갖게 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결국, 기능주의자 패러다임이란 객관성과 질서라는 렌즈로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입장이다. 객관성과 질서를 준거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을 과학적 접근방법이라고 한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며, 미신적이라고 생각한다. 교과에서의 교육은 교과 지식과 보충이라고 하는 1차 산업시대의 논리에 묶여 있으며, 결국, 효과적인 교육은 분리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오랜전역 역사 속에서 형성된 우리의 문화와 지식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명분 아래 박물관 속으로 갇혀 버렸다.

2) 인간주의 교육

인간주의자 패러다임으로 교육을 본다는 것은 결국 주관성과 갈등의 렌즈를 통해 교육을 본

다는 것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Heidegger)는 "지금까지 과학이 우리 사회에서 사악한 계모의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는 예술이 신데렐라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교육이 이제 더 이상 과학적 접근을 지양하고, 예술적 접근을 지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이 과학적으로 접근해 왔다는 것은 전문가들에 의해 체계화(객관화)시켜놓은 지식(교육 과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바로 우리의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을 교과 지식 전달이라고 생각한다. 평가는 누가 교과 지식을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왔다.

교육이 예술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을 극대화 시키는 것이다. 즉, 교육은 개인의 소질, 개성,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것으로, 한 개인의 능력이 어디까지, 어떻게 개발될지는 알 수 없다. 교육에 있어서 지식은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본질일 수는 없다. 만약, 개인의 소질을 개발하는데 교과 지식이 방해가 된다면, 그 지식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예술적 활동이라는 것이다. 개인의 소질을 개발하는 주체는 본인이어야 한다. 교사는 개인 학생이 자기의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태도는 아주 중요하다. 수업시간에 정답을 찾는 교육은 과학적 활동이다. 반면, 아이들의 말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왜 그렇게 답했는지를 계속 묻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소리에 대한 의미를 찾고목 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답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예술적 활동이 된다.

4. 통합교육의 당위성

결국, 패러다임이 객관성에서 주관성으로, 질서/미시성에서 갈등/거시성으로 이동 했다는 것은 교육이 과학적 활동에서 예술적 활동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객관성에서 주관성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교육은 전문가들이 체계화시켜 놓은 지식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지니고 있는 소질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를 의미한다. 이것을 창의성 개발이라고도 한다. 최근 우리 교육에서 창의성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창의성은 주관성의 렌즈로 교육을 보았을 때 가능하다. 창의성 교육이 실패하는 이유는 객관성의 렌즈로 교육을 보기 때문이다.

한편, 질서/미시성의 렌즈로 인간을 본다는 것은 인간의 행동을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개인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교육을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면 교육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바람직한 행동을 객관화(표준화)시켜 놓고, 학생들에게 경쟁적으로 그 행동을 따라하도록 요구한다. 그래서 교육은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껏 교육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간을 기르는데 몰두해 왔다. 우리 사회는 경쟁사회이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갈등/거시성의 렌즈로 인간을 본다는 것은 행동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는데서 벗어나, 관계 속에서 개인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지역 사회와의 관계, 주변 환경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우주와의 관계 속에서 개인을 이해한다. 때문에 교육은 모든 관계 속에서 협력과 배려를 핵심역량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2015개정 교육과정도 협력과 배려에 초점을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협동성은 2000년도부터 적용된 7차 교육과정에서도 강조된 덕목이다. 실패한 이유는 질서/미시성의 렌즈로 교육을 보았기 때문이다. 협력과 배려는 갈등/거시성의 렌즈로 교육을 볼 때만이 가능하다.

참고자료

교사들을 위한 TIP

<메인스트림 운동> 분리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이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개된 운동이 메인스트림 교육이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비판적 논의는 장애학생의 편별, 배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간의 관련성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이 특수교육의 분리 교육에 대한 실제적 비판은 가장 가시적인 것이며, 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 서비스의 전달 방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왔다. 실제적 비판과 실제적 변화 간의 이러한 상호형성적인 관계는 전체 특수교육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현대 미국에 있어서 가장 집중적으로 많은 결실을 맺은 기간은 메인스트림이 전개된 1965년에서 1975년의 10년 동안이다. 1960년대의 사회적-정치적 분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부모와 학생과 옹호자들은 인권과 시민권에 대한 그 시대의 민감성을 이용하여 그 당시 수행되던 특수교육 실제의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특수교육에 대한 이와 같은 특별한 국면은 전국의 법정과 주정부 그리고 심지어 미국 의회에서의 승리로 이어졌다. 이러한 승리는 결국 1975년의 미국장애아교육법(P.L.94-142)의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특수교육 실재를 다시 정의하게 했다. 미국장애아교육법은 본질적으로 제한적인 환경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상적 사회 환경 즉, 가장 통합된 환경에 가까이 장애학생을 배치하고 장애학생들에게 적절한 무상 공교육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일반교육과의 구조적인 관계를 변화시키고 학생들과 그의 부모들에게도 헌법권과, 법의 공평한 절차를 포함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확대함으로써 특수교육 실재를 변화시켰다.
--

<일반교육 주도의 특수교육(REI: Regular Education Initiative)> 특수교육 전문가들과 옹호자들이 확실하게 정책개혁을 성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인스트림과 미국장애아교육법을 시도한 지 10여년 후에, 분리교육이 더더욱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수교육전문가들과 지지자들은 메인스트림에 대한 수행상의 개혁을 상설하게 되었다. 비록 특수교육 사회에서 교육의 효율성을 위한 장애아교육법의 근본정신이나 취지에는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 사이에 패배감이 확산되어 장애아교육법과 메인스트림을 지지해 왔던 많은 사람들도 새로운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1980년대 일반교육 주도의 특수교육(REI: Regular Education Initiative)이다. 메인스트림 교육의 실패 원인은 장애아동을 분리한 후, 일반학급에 통합할 수 있도록 개선헌치된 뒤, 통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아이들은 전체 학령기 동안 분리교육만을 받았으며, 그래서 분리교육이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 REI는 장애아동을 일반학급에 배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교육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REI는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시 경도장애아동들은 통합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중증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의견이 서로 상이했기 때문이다. 완전분리, 분리후 통합, 통합후 분리, 완전통합으로 의견을 달리하여 논쟁해 왔기 때문이다.

< 정 리 >

○ 패러다임과 패러다임 이동의 개념

① **패러다임의 개념**: 패러다임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특수렌즈'

② **패러다임 이동의 개념**: 패러다임 이동은 하나의 렌즈를 포기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일어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정상과학에 대한 변칙(abnormal)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이동은 혁명과학이 된다.

○ 사회과학 네 가지 패러다임

두 차원의 초이론적 가정들 간의 관계에 의해 개념화된다.

① **객관성-주관성 차원**: 철학 내 논쟁의 네 가지 전통적인 요소, 즉, 존재론(ontology: 실체의 본질), 인식론(epistemology: 지식의 본질), 인간 본성(human nature: 인간행동의 본질), 방법론(methodology: 조사연구의 본질)을 사용하였다.

② **질서-갈등 차원**: 질서-갈등(order-conflict)차원을 묘사하기 위해 "규범적 사회학"과 "급진적인 변화의 사회학"을 사용함으로써, 그 문제에 사회학적으로 접근하였다.

③ **현대 사회과학적 사고의 네 가지 패러다임**: 현대 사회과학적 사고의 네 가지 패러다임, 즉, 기능주의(미시-객관), 해석주의(미시-주관), 급진적 인간주의(거시-주관), 급진적 구조주의(거시-객관)

④ **패러다임 이동과 사회과학의 초도약**: 사회학 분야에서의 패러다임 이동과 관련된 발전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으로의 도약을 가져 왔다. 포스트모더니즘은 현대 사회과학 지식의 네 가지 패러다임의 영역밖에 있는 사회적 분석을 위한 증거의 틀이다.

○ 기능주의 교육과 인간주의 교육

① **기능주의자 패러다임 교육의 문제**: 객관성과 질서라는 렌즈로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입장. 이러한 접근방법은 과학적 접근방법.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며, 미신적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의 교육은 교과 지식과 보호라고 하는 1차 산업 시대의 논리에 묶여 있으며, 결국, 효과적인 교육은 분리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② **인간주의자 패러다임 교육**: 주관성과 갈등의 렌즈를 통해 교육을 본다. 정답을 찾는 교육은 과학적 활동이다. 반면, 아이들의 말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왜 그렇게 답했는지를 계속 묻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소리에 대한 의미를 찾고목 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답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예술적 활동이 된다.

○ 통합교육의 당위성

① 패러다임이 이동 했다는 것은 교육이 과학적 활동에서 예술적 활동으로 이동을 의미.

② 객관성에서 주관성으로 이동은, 교육은 지식전달에서, 개인의 소질을 극대화시키는 것.

③ 갈등/거시성의 렌즈: 교육의 핵심역량은 모든 관계 속에서 협력과 배려.

④ 오늘날 2015개정 교육과정이 협력과 배려에 초점을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⑤ 주관성으로 이동: 교육은 내부의 세계를 외부 세계로 끄집어내는 것이다.

⑥ 갈등/거시성으로 이동: 교육은 협동성과 배려심을 기르는 것이다.

⑦ 결국, 교육이 개인 내부의 세계를 끄집어내는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학급에서는 어떤

학생이 있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편, 동질집단으로 구성된 학급보다는 이질집단으로 구성된 학급이 협동성/배려심을 기르기 위한 다양성을 가진 환경일 것이다. 결국, 완전통합교육은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모두를 위한 교육 환경이 될 것이며,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분리가 아닌, 하나의 공교육으로서의 변화 추구는 당연한 것이다.